

침구전문업체 ‘이브자리’ 추첨 150명에게 침구세트 증정

침구전문업체 이브자리가 9월4일까지 ‘쉽게 따라하는 침실 홈 스타일링’ 이벤트를 연다. 신혼 침실 스타일링 3종과 싱글 침실 스타일링 2종을 제안하고 각 테마에 맞는 제품을 추천한다. 이브자리 매장 내 홈 스타일링 추천제품을 찾아 인증샷을 촬영한 뒤 이브자리 공식 페이스북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가을·겨울 신상품 침구세트 등을 준다.



‘인터넷전문은행’ 정착, 은행법에 달렸다

‘K뱅크’ 연말영업 앞두고 규제 완화 목소리

전자매체로 운영하는 은행…소비자에 유리
해외선 정보통신기술기업 주도적 역할 성공
“국내 은행법 개정…ICT기업 자본 높여줘야”

요즘 핀테크(FinTech)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다. 핀테크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밤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기존 금융권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신이 빠르게 발전한 ICT기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보수적인 금융에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핀테크의 꽃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기존 은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자매체로 운영하는 은행이다. 무점포와 비대면 서비스가 특징이다. 영업공간 사용비용 등을 운영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에 비해 금리나 수수료가 저렴하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다. 급속히 발달하는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 덕분에 혁신과 편의성 보안성 등에서 기존의 금융 소비자가 누리지 못했던 더 편리한 뭔가를 준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해외에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
통신·IT·유통·전자·자동차 등 비은행권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성공하고 있다. ICT기업의 주도 속에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른 안정화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통신사 KDDI와 도쿄미즈비시은행이 합작한 지분뱅크가 자산기준으로 해마다 47.6% 급성장 수치를 보여줬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기업이 참여한 이후 연평균 10% 내외로 자산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라쿠텐은행은 라쿠텐이 2008년 이뱅크를 인수해 2009년 흑자전환했다. 지금은 연평균 자산이 15% 급상승하고 있다. 재팬닛은행은 아후가 2006년 재팬닛은행 주식의 40%를 인수한 이후 흑자 전환했다. 연평균 9% 성장 페이스다.

스페인인 경우 1위 통신사 Telefonica가 2개 은행과 함께 설립한 Yaap이 출시 6개월 만에 1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미국은 찰스 슈와브(Charles Schwab)은행과 알리(Ally) 은행, 독일은 피도(Fidor) 은행, 중국은 위(We)은행과 마이(My) 은행이 각각 있다. 각자가 잘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둔 K뱅크 준비반인은 22일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다. 서울 중로구 더케이타워의 K뱅크 사옥에서 600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행 중인 통합테스트 모습. 사진제공 K뱅크

arles Schwab)은행과 알리(Ally) 은행, 독일은 피도(Fidor) 은행, 중국은 위(We)은행과 마이(My) 은행이 각각 있다. 각자가 잘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

●**한국에 등장한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나라는 ICT기업을 대표해 KT와 카카오가 각각 참여했다. 이 가운데 KT는 K뱅크의 지분 8%를, 카카오는 카카오펍크의 지분 10%를 소유했다. K뱅크는 통신기업 KT의 ICT역량을 토대로 모바일 기반의 종합은행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과 고객의 패턴분석을 통한 맞춤형 은행금융을 제공할 생각이다. 간편결제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제휴 앱의 추가 로그인 없이 결제가 가능한 편리성을 추가하고 LTE 데이터 이용권과 VOD 이용권, 지니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현금대신 이자로 지급하는 것 등도 구상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본인가 신청을 하고 올해 내로 본격적인营业을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은행법을 고쳐야**

문제는 규제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의 반복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ICT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다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KT나 카카오 모두 컨소시움에서 자본이 적다. 주도적 사업자가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뒤로 밀려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야 할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법 내의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정이 걸림돌이다.

해결책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ICT전문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높여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해줘야 혁신적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먼저 도입한 외국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 경우 은산분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의 25%를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은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ICT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된 것은 없다. 핀테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우리에게는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은행법 개정이 성공의 관건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레이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더 날렵해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랜드로버 68년 사상 첫 컨버터블 모델인 ‘레이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출시는 9월이다. 레이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최첨단 패브릭 소재로 정교하게 제작된 폴딩 루프는 닫혔을 때 날렵한 라인을 유지해준다. 레이지로버 이보크의 세련된 디자인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현재 판매 중인 컨버터블 모델 중 가장 길고 넓은 사이즈로 제작돼 루프를 열었을 때는 여타 컨버터블보다 탁월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제어

가능한 전동식으로 최고 48km/h이내 속도에서 작동한다. 각 18초, 21초 만에 완전한 개폐가 가능하다.

적재 공간도 넉넉하다. 루프 개폐에 관계없이 별도로 확보된 적재공간은 여행용 가방과 같이 부피가 큰 물건도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구성됐다.

랜드로버의 특허 기술인 전자동 주행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도 적용되어 있다. 노면 상황에 따라 차량의 설정을 최적화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토



크 벡터링 기술도 적용되어 있어 급격한 코너에서의 제어력도 뛰어나다. 레이지로버 이보크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SE다이내믹이 8020만원, HSE 다이내믹이 904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존슨즈 여자아이 전용 ‘공주샴푸’ 출시

베이비 & 키즈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존슨즈가 2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여자아이 전용 ‘공주샴푸(존슨즈 액티브 키즈 샤이니 샴푸)’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다.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처음부터 끝까지 밍밍…‘평양냉면’ 같은 한잔

컨슈머블로그 카페베네 아메리카노

중국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훑어지게 노력보다가도 결국 “짜장면 주세요”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인지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 나와 버리는 종목이 있다.

“아메리카노요.”

쩐한 에스프레소에 더운 물을 부어 연하게 마시는 커피인 아메리카노는 어느덧 ‘다방커피’를 밀어내고 국민커피의 왕좌에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오늘 컨슈머블로그의 주인공은 아메리카노이다. 그 중에서도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장을 방문해 아메리카노의 맛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는 호기롭게 치즈 케이크 한 조각도 주문했다.

커피의 생명은 원두다. 우선 카페베네의 원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카페베네는 브라질의 이파네마 농장과 직거래를 통해 최고 품질의 생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 단일 커피농장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공수한 원두는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로 미디엄 다크로스팅과 선 로스팅 후 블렌딩 공법으로 커피의 풍부한 맛을 최대한 살린다. 100% 뜨거운 바람으로만 로스팅을 하는 최신 열풍식 로스터를 도입했다. 고객에게 신선하고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열풍식 로스터란 게 무엇인가. 역화전열가스를 사용한 고효율 로스터이다. 로스터는 열을 가해 일정시간 동안 원두를 볶는 기계이다. 열풍식 로스터의 경



우 복사열을 활용하여 에어로스팅 방식으로 대량의 원두를 균등하게 볶을 수 있다. 따라서 맛의 편차가 없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맛은 어떻게.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를 마셔 본 소감을 한 단어로 줄여본다면 이런 느낌이다. 밍밍. 다른 브랜드의 아메리카노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다. 개인의 취향이 크게 갈릴 듯하다. 평양냉면 전문점의 육수 맛이랄까. “수돗물 맛이 난다”며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면 맛 좀 안다는 사람들이 “습습한 맛”이라며 격찬하는 그 묘묘한 맛.

물론 아메리카노는 냉면이 아닌 만큼 ‘습습한 맛’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즐거움은 ‘첫 모금’에 집중되어 있지만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는 이 점에서도 아쉬웠다. 모 업체의 지나치게 탄 냄새도 좋을 게 없지만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는 향기조차 심심했다. 설마 100% 열풍이 원두의 맛과 향기까지 말려버린 것은 아니겠지. 이래서야 집에서 커피메이커로 걸러 먹는 커피와 별 다른 차이가 없지 않은가.

원두를 태운 냄새에 민감하거나 연한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 모르겠다. 좋게 표현하면 맛도 향기도 순수하다. 첫 모금의 느낌이 마지막 모금까지 참 견결같다. 균일하게 밍밍하다. 아참, 기본적으로 맛이 순한 커피라 얼음까지 넣어 아이스커피로 마시면 정말 ‘순하다 순한’ 커피가 된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비즈갤러리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9@donga.com

롯데월드타워 현장 근로자·가족 초청 음악회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롯데물산은 9월21일 롯데월드타워 현장 근로자와 가족, 1800여명을 롯데콘서트홀로 초대해 음악회를 연다. ‘롯데월드타워 작은 영웅들의 꿈과 열정에 보내는 음악회’라는 이름의 이번 콘서트는 1부에서 오케스트라의 클래식공연이 열리고, 2부에서는 근로자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공연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아파의 모습

이 담긴 뮤직영상과 사연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9월7일까지 롯데월드타워 SNS에서 ‘현장에 보내는 백만 팬의 감사편지’이벤트를 통해 근로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음악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공개한다.

리솜포레스트 ‘효재네풀’ 20% 할인 판매



충북 제천의 리솜포레스트에서 자연주의 문화다자이너 이효재가 운영하는 생활아트숍 ‘효재네풀’이 추석명절을 맞아 처음으로 전 품목 20% 할인판매한다. 9월19일까지다. 자수손수건, 효재보자기, 4점면행주세

트, 효재알차미 등 브랜드 ‘효재’의 다양한 생활아트상품과 제천 지역의 명장들이 만든 광덕빚자루, 다기, 나전칠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효재를 유명하게 만든 보자기아트로 포장된 추석명절세트도 세일 판매한다. 건강을 기원하는 배넷저고리세트를 비롯해 실속상품인 면행주세트, 원피스주방수건 세트 등도 만날 수 있다.

내일투어 스위스여행 인증샷 이벤트

내일투어는 31일까지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대상은 스위스 여행에 관련된 사진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하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1등 40만원 상당의 액션캠(1)을 비롯해, 3만원 상당의 아웃백 식사권, 영화예매권, 스타벅스커피 기프트콘, 내일투어 엽북 이용

권 등을 준다. 당첨자는 9월9일 내일투어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내일투어는 스위스정부관광청 공식 강북 여행센터로 스위스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맞춤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에어서울 국제선 취항기념 ‘사이다 특가’



10월 국제선 첫 취항을 앞둔 에어서울이 9월 7일까지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에 한정 판매하는 ‘사이다 특가’ 이벤트를 한다. 에어서울이 취항하는 일본 다카마쓰, 시즈오카, 도야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요나고와 마카오 노선 항공권을 편도 최저운임가부터 선착순 수량한정으로 판매한다. 여행 기간은 탑

승일 기준 11월30일까지다. 에어서울 홈페이지(<http://flyairseoul.com/>) 및 모바일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블루키패션몰, F/W시즌 맞아 신규브랜드 입점
경기도 용인 소재 복합쇼핑몰 ‘블루키패션몰’이 F/W시즌을 맞아 대형 신규브랜드 입점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8월 말에는 75평 규모로 국내토탈패션기업 TBH글로벌의 베이직하우스와 비즈니스캐주얼 마인드브릿지, 더글래스, 리그 등의 자사브랜드들을 함께 구성해놓은 베이직하우스&마인드브릿지 라이브러리 북합판이 들어설 예정이다. 9월에는 지오지아 메가스토어가 입점한다. 지난 17일에는 소다의 글로벌 SPA 슈즈브랜드 ‘슈스파’가 45평 규모로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